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20>

제5부-튼튼한 지원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5 보육기업 성공 노하우

# ‘세계 첫 기술’ 한계 봉착...멘토 기업이 물꼬 터졌다



맥스트의 증강현실 차량 매뉴얼을 통해 조작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에 직접 붙이는 접착식 스노우패스인 ‘스노우패스’.

### (주)맥스트

자동차 기능 조작·점검 상황 등  
3D 증강현실 매뉴얼 적용  
세계 첫 車 사용자 설명 앱 개발  
대기업·혁신센터 도움에 상용화



3D 증강현실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 사용자 설명서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개발한 맥스트 사무실.

현대자동차가 올해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하는 제네시스 G90(국내명 EQ900)에 3차원(3D) 증강현실 매뉴얼 ‘현대 버추얼 가이드’를 적용한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양산 차량에 3D 증강현실 매뉴얼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현대차가 처음이다. 현대 버추얼 가이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자동차의 각종 장치에 갖다 대면 3D 영상으로 사용 방법을 보여준다. 차량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쉽게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각종 기능 조작 방법 외에도 에어클리너 필터 교환, 배터리 점프 스타트 방법, 스페어타이어 교체 방법 등 200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러한 3D 증강현실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 사용자 설명서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주)맥스트(대표 박재완)다. 맥스트 역시 아시아계 창업하며 출발했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1기 보육기업으로 입주한 후 기술개발 멘토링과 자금지원으로 성과를 일군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0년에 설립한 맥스트는 증강현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증강현실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매뉴얼 분야를 개척하고 교육훈련 분야에도 해당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아시아계 도전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강현

실 게임과 가상 의류 피팅 등의 상업화 프로젝트에 도전하였으나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가 현대차와의 만남, 그리고 광주혁신센터를 통해 날개를 달 수 있었다.

2014년 진부해져가는 종이 매뉴얼을 혁신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던 현대차 해외영업본부는 맥스트를 찾았고 증강현실을 통한 차량 매뉴얼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광주혁신센터에 입주, 증강현실 차량 매뉴얼에 필수적인 차량 내부 픽토크램인식을 위한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맥스트는 이 기술로 ‘2015 창조경제혁신 기업부문 대상’(미래부 장관상)과 ‘2015 하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을 수상했다.

박재완 맥스트 대표는 “단순한 개발 지원뿐 아니라 대기업인 현대차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 광주혁신센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 지난 5월 현대차와 디에스자산운용, 엘앤에스벤처캐피탈로부터 총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 유치로 맥스트는 증강현실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5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과 약 2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스노우베어

세계 첫 타이어 접착식 스노우패스  
독일 스노우체인보다 제동력 우수  
생산·유통 난항 시제품에 그치다  
혁신센터 만나 상업화...완판 기록



백정선(가운데) 대표가 보육기업 졸업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타이어에 직접 붙이는 접착식 스노우체인 ‘스노우패스’. 스노우패스는 핀란드 동계주행성능 테스트 기관인 테스트월드에서 일반타이어와 비교해 약 40% 제동력이 향상됐고, 독일 TÜV 인증 스노우 체인보다 우수한 제동 성능을 보여 업계를 놀라게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다양하다. 기존의 사슬형 스노우 체인은 설치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반면, 스노우패스는 3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 방법은 단순히 계 전용 접착물질을 패치에 도포 후 패치를 도로 주행 요건에 따라 비취당 1장에서 2장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하는 방식이다. 사이즈는 성인 손바닥의 크기를 넘지 않으며, 차량 한 대에 해당되는 부피와 무게는 스마트폰 1개 분량의 무게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최초로 붙이는 방식의 스노우체인을 만들어 상업화에 성공한 스노우베어(대표 김승훈·백정선)는 대기업의 기술 후원과 자금 지원이 생활 속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2012년 겨울 고속도로에서 만난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고 차들이 사고 나는 것을 목격한 뒤 ‘타이어에 그냥 붙여서 쓸 수 있는 일회용 스노우체인’을 떠올리게 됐고 2014년 스노우베어를 창업해 제품 개발에 노력했지만 기술과 예산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해 늦은 겨울 제품을 런칭했지만 생산과 유통시점, 기술의 한계로 시제품에 가까운 형태로만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2015년 1월 광주혁신센터에 제품 개발과 관련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벤처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광주혁신센터의 지원에 힘입어 결국 제품 개발에 성공하게 된 스노우베어는 현대자동차그룹 유통유통회사인 ‘현대 오도엔’을 통해 250여개의 온라인 유통회사에 제품이 유통되게 됐고 초기 생산물량 모두를 완판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또 제품 출시 후 광주혁신센터의 계속적 지원을 받으며 ‘ICT유망기업 인증(미래부 장관)’을 얻었고 ‘2015 하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정선 스노우베어 대표는 “특허까지 출원하고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난관에 처했는데 다행히 광주혁신센터 협력사인 현대차로부터 기술자문과 마케팅·유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젊은 벤처기업의 거침없는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대를 넓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목표로 뛰고 있다. 국내 시장의 4배에 가까운 규모를 가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일본 최대 유통 양판점인 ‘돈키호테’와 일본 최대 자동차용품 체인점인 ‘오도박스’와 ‘엘로우렛’의 밴드들과 2016년 제품 출시 프로젝트도 진행중에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패턴, 대리석조형, 대리석무늬, 스텔라패턴, 벽돌무늬, 벽돌패턴(대형패턴)

시공후: **이파엘지** |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